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도서 연구

이윤희*

목 차

1. 들어가며
2.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과
기타 언어 장서들
3. '전선' [一條戰線]에서 '피의 탄환' [血彈]이
되어 저항하다
4. 스스로 '폭약 [炸藥]'이 되어 저항하다
5. 나가며: 남겨진 과제들

국문초록

일본 식민지 시기 조선 유일의 관학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소장본 중에는 20세기 전 반 중국 대륙에서 출간된 백화체 문학도서 938권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의 독자적 문서고로 보존되어 있는 이 도서들은 경성제대 법문학부 지나어문학 전공 교수 가라시마 다케시가 수집한 컬렉션으로 문학작품, 비평서 등 장르와 주제를 망라해 구비되어 있어 다양한 문학작품을 통해 동시대의 역동적 중국을 생생히 읽어내려는 가라시마의 연구 지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컬렉션에는 식민지 문서고에 대한 통념에서 벗어난 도서들도 일부 소장되어 있는 바, 40권에 이르는 혁명문학도서와 7권의 항일무장투쟁 도서에 특별히 주목하게 된다. 특히 항일무장투쟁 도서 7권의 존재는 식민 통치자의 엄혹한 검열에서 벗어나 있던 경성제대라는 특수한 아카데미의 존재를 예증하는 역사적 증거물이 되는 동시에, 가라시마가 중국현대문학의 세 가지 큰 주제로 '반

* 가톨릭대학교 중국언어문화학과 강사

봉건, 반군벌, 반제국'을 도출하도록 이끈 자료로서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이 수행한 역사적 역할을 되새겨보도록 한다. 더 나아가 이 도서들과 식민통치 말기 가라시마의 행적을 참조하며 시대와 지식인의 관계를 반추해볼 수도 있다. 그 시기 가라시마는 관학의 교수로서 조선 문화계에 전쟁 협력을 강압했을 뿐 아니라 조선인을 전쟁에 동원하는 데 앞장서기까지 했기 때문이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에 휩싸인 미망한 지식인의 비극적 선택과 이 7권의 항일무장투쟁 도서는 이렇게 이율배반적 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더불어 7권의 도서는 기존 중국현대항일문학사에서 주목하지 않은 제재와 내용으로써 문학사 서술의 공백을 보완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다.

키워드: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가라시마 다케시, 중국의 항일무장투쟁 도서, 식민지 문서고, 王平陵, 孫俚工, 陽翰笙(林箐), 程朱溪, 蔣本沂, 黎錦明, 張天翼(鐵池翰)

1. 들어가며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세운 유일한 관학이었던 경성제국대학(이하 경성제대)의 건립으로부터 어느덧 10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1926년 개교해 1945년 일본 패망과 함께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 경성제대의 존속은 미처한 세대에 이르지 못하는 기간이었으나, 학문 연구와 교육이라는 장 속에서 식민 통치자의 야욕과 피식민 지식인의 욕망이 복잡하게 교차하며 결과적으로 난해한 콜라주를 만들어낸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다.

경성제대에 대한 연구는 약 10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했다. 관련 연구가 축적되며 한 세기 전 존재했던 식민지 조선 유일의 '대학'¹⁾ 경성제대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다. 오늘날의 연구 성과에 기반해 경

1) 식민지 조선에서 '대학' 타이틀이 허가되고 부여된 아카데미는 경성제대가 유일했다. 일본은 식민통치권력 이외의 교육 주체에 의해 대학이 운영되며 조선인의 민족의식이 배양되는 것을 꺼려했다. 연희전문학교, 보성전문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등은 식민지 기간 동안 끝내 '대학'이라는 최상위 고등교육기관 타이틀을 획득할 수 없었다.

성제대의 역사를 평가할 때 다만 하나의 시각, 즉 제국 일본의 강압적, 수탈적 조선 통치를 공고히 하는 데 이용된 학문기관이었다는 측면에서만 평가하기란 실로 어렵다. 식민지 조선 땅의 경성제대였으나 내지 일본의 다른 제국 대학들과 같은 교육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식민과 피식민, 지배와 피지배로 얽힌 자들 간 길항하고 억누르고 벗어나는 힘들이 그려낸 자취를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멀리서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소장되었던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도서 7권의 존재²⁾는 바로 경성제대가 지녔던 복잡한 면모의 단층을 드러내는 하나의 사례가 된다.

식민지 시기 조선의 출판물은 식민 지배자가 시행한 엄중한 검열의 대상이었다. ‘지구상에서 유례없는 식민통치체제의 검열과 감시’였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이다.³⁾ 1926년 4월 조선총독부에 설치된 도서관은 식민지 출판경찰의 본격적인 체계화를 의미했다.⁴⁾ 비단 조선 내에서 출간되는 도서뿐 아니라 외국에서 수입되는 출판물에 대한 검열도 시행되었다. 도서관은 조선 내부에서 생산된 텍스트와 조선에 반입되는 이수입 텍스트 모두를 검열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⁵⁾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서들이 조금씩 늘어가면서 당국의 ‘취체와 검열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지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는 기사들이 당시 다수 등장하기도 했다.⁶⁾ 일본에서 제작된 출판물이 조선으로 들어오는 과

2) 7권 가운데 유일하게 『齒輪』의 줄거리만 항일무장투쟁에서 약간 벗어나 있다. 『齒輪』은 청년들의 항일시위를 주로 다룬다. 7권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王平陵, 『期待』(1934); 孫俚工, 『血彈』(1932); 陽翰笙(林箐), 『義勇軍』(1933); 程朱溪, 『紫色炸藥』(1937); 蔣本沂, 『一條戰線』(1932); 黎錦明, 『戰煙』(1933); 張天翼(鐵池翰), 『齒輪』(1932).

3) 임현영, 「한국과 중국의 항일문학: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문학인의 역할」, 『내일을 여는 역사』 2014년 겨울호(통권 제57호), 306쪽.

4) 한기형,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대동문화연구』 제72집, 469쪽.

5) 한기형, 「근대시가의 '불온성'과 식민지 검열: 『諺文新聞의詩歌』(1931)의 분석」, 『상허학보』 vol.25(2009), 122쪽.

6) 김미지, 「독서의 식민지적 조건과 양서(洋書) 읽기의 열망들」, 『구보학보』 vol., no.32, 2022, 126쪽. 1933년에는 내무성 경무국에서 사상대책의 출판물 취체령을 입안 시행하기로 하고, 국외에서 들어오는 사상서적의 검열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기사도 보인다. 김미지의 같은 자료 126쪽 참고.

정에서 압수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⁷⁾ 검열의 기준은 제국의 통치와 질서를 위협하고 교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일본의 조선 지배 기본 방침이었던 내지(일본)로의 동화 정책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했는지의 여부였다.

이 같은 검열의 시대에,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소장됐던 중국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일부 도서에 “일본 제국주의를 타도하자”고 외치고,⁸⁾ 일본군의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 사이에서 동강난 가족들의 시체를 찾아내고,⁹⁾ 검은 코트를 입은 초췌한 낫빛의 청년(윤봉길)이 일본군 수뇌부를 향해 물통으로 위장한 폭탄을 던지는¹⁰⁾ 내용이 포함된 문학작품들이 소장되어 있음은 놀라운 사실로 다가온다. 항일의 외침과 항일무장투쟁을 묘사한 이 작품들은 어떻게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소장본으로 구비될 수 있었는가? 이 도서들은 당시 식민 통치자의 검열망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가? 식민지 조선의 검열에 관한 보편적 지식을 지닌 채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의 작품들을 접하게 되었을 때,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컬렉션 내 해당 작품 다수는 다만 항일의 외침을 담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항일무장투쟁의 전장 속 피땀을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 이 점에서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작품들은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낯설게 다가오게 된다. 중국현대문학 연구자에게 항일문학은 생소한 용어가 아니지만, 정작 항일문학 작품을 찾아서 읽었을 때, 또는 항일문학의 대표작이라 알려진 작품을 읽었을 때 대개는 그 가운데 묘사된 저항의 미약함에 맥이 빠지곤 했기 때문이다. 선대에 일본의 식민통치를 겪은 후손으로서 중국의 항일문학 작품에게 대신 기탁하는 보복의 심리가 일부 작동했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기대하는 수위의 항일의 정도에는 미치지 못하곤 했다. 대표적 항일

7) 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토착성’이란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화사연구』 vol.57(2015), 136쪽.

8) 蔣本沂, 「兩個不同時代的女性」, 『一條戰線』, 上海樂華圖書公司, 1932年, 34쪽.

9) 程朱溪, 「紫色炸藥」, 『紫色炸藥』, 中華書局, 1937年, 37쪽.

10) 黎錦明, 『戰煙』, 上海天馬書店, 1933年, 144쪽.

문학 작품으로 해방구 작품들이 많이 거론되지만, 그 안에는 격렬한 항일전투 장면보다는 당의 영도 아래 계급의식과 혁명의식으로 각성되어 번신하는 농민의 이야기가 더욱 중심이 되어 있었다. ‘적’ [敵人], ‘전투’ [打仗], ‘항일 유격대’ 등 단어는 자주 등장했지만 일본군과의 피 흐르는 전투 장면은 거의 묘사되지 않았다. 이런 독서 경험 위에서 읽게 된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도서들은, 중국현대항일문학사의 주류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 주류적 특징과 사뭇 다른 생경한 존재감을 갖고 있었다.¹¹⁾

이상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모색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이 소장된 경위를 간략히 정리하고,¹²⁾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기타 언어 장서의 구성을 살핌으로써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이라는 이 특별한 식민지 문서고의 특수성을 더욱 명확히 파악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도서들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 뒤 이 작품들이 식민지 문서고에 소장되었던 문학사적, 역사적 의미를 반추해보려 한다.

11) 중국현대항일문학사에서 대표작으로 꼽는 작품 중 蕭軍의 증편소설 『八月的鄉村』(1934년)에는 드물게 항일 전장의 장면이 많이 묘사되어 있다. 1931년 ‘9·18’ 사변 직후 중국 동북 지역에서 활동한 항일유격대의 총격전이 긴박하게 그려진다. 또 다른 항일문학 대표작으로 蕭紅의 『生死場』(1934년)이 자주 거론되지만, 재미 중국학자 劉禾가 여성주의 시각으로 다시 읽은 분석이 더 설득력을 지닌다. 해방구의 대표적 항일문학 작품으로 꼽히는 孫犁의 『荷花淀』(1945년)에 항일유격활동에 참여하는 농민들이 등장하지만 그들의 유격전은 백묘법(白描法)으로 처리되어 있을 뿐, 소설 서사의 중점은 용감한 투사로 번신하는 농민에게 있다.

12)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이 소장된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아래 자료 참고.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백화체 문학 장서의 구성 연구」, 『중국소설논총』 제57집(2019.4).

2.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과 기타 언어 장서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에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이 구비되고 그 안에 혁명 문학 작품과 항일무장투쟁 작품들이 소장된 것은 식민지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곳이 경성제대라는 특별한 아카데미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경성제대는 일본 내 제국대학들과 마찬가지로 강좌제에 따라 학제를 운영했다. 유럽 대학을 본 딴 제국대학의 강좌제는 교수들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국대학의 특징적 제도였으며,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과 연구의 기초적 단위로서 학문적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학제였다. 교수들은 본인이 맡은 강좌를 위한 연구에서 자율적 권한이 있었으며, 본인이 연구하는 학문 분야의 이름을 건 강좌제를 통해 학문적 독립 영역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¹³⁾

제국대학은 일본이 서구 근대 문물을 학습해 빠른 시일 안에 그들을 추월하기 위해 만든 국가의 대학이었다. “국가에 수요한 학술의 이론 및 응용을 교수하고 아울러 그 온오(蘊奧)를 고구(考究)”한다는 분명한 설립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제국대학 교수들은 서구 근대의 철학과 사상을 다양하게 수용하고 연구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교수의 자율적 학문 추구 역시 보장되었던 것도 사실이었다.¹⁴⁾ 강좌제는 이러한 제국대학의 학풍

13)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혁명문학 도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38호(2023.2). 제국대학 강좌제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106~111쪽; 정준영,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 『역사문제연구』 제26호(2011), 16쪽.

14) 이윤희, 각주 13의 논문, 189~190쪽. 1941년 12월 발발한 태평양전쟁 시기부터 일본 패망 전까지 약 3년간 제국 막바지에 전쟁의 광풍이 휩쓸던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 제국대학은 학문 연구에서 비교적 이념적, 사상적으로 자유로운 학풍을 누릴 수 있었다. 제국대학의 이러한 학풍은 일본이 1938년 만주에 세운 ‘건국대학’과 비교했을 때 더욱 선명히 드러난다. 건국대학 설립 관계자들은 기존 제국대학의 학풍을 상당히

을 보장하는 학제였다. 이에 따라 기독교 사회주의자 또는 유럽식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제국대학 교수들이 등장하기도 했다.¹⁵⁾

경성제대 법문학부 지나어문학 전공 교수 가라시마 다케시(辛島驍)는 동시대의 중국 신문학이야말로 살아 움직이는 중국을 이해할 수 있는 문학이라 인식하며 기존 한학(漢學) 중심의 지나문학 연구 관행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는 1928년 도쿄제국대학 지나문학과 졸업 후 바로 경성제대에 부임한 뒤 중국 신문학 관련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했다. 고전 시문과 경전에서 벗어난 중국 신문학 강의는 당시 경성제대 지나어문학 전공 학생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었다. 최창규, 김태준(천태산인) 등 지나어문학 전공 학생들은 당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중국문학과 만난 ‘천번지복’(天翻地覆) 한 충격과 영향력을 토로하기도 했다.¹⁶⁾

가라시마는 중국 신문학의 큰 주제를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작가들의 신문학 작품을 통해 혁명적 움직임으로 격동중인 동시대의 중국을 이해하고자 했다.¹⁷⁾ 그의 중국현대문학 연구 지향이 그대로 반영된 역사적 실물이 바로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고문헌자료실에 보존되어 있는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이다. 938권의 백화체 문학도서들은 20세기 전반 중국에서 출판된 신문학 작품들로 구성되었다. 노신, 모순, 파금, 심중문, 노사, 장광자, 장자평, 전한 등 저명 작가 작품에서부터 주전평(周全平),

우려하고 그런 불량한 분위기가 건국대학에 유입되지 않도록 경계했다.

15) 제국대학 교수들의 다양한 정치적 입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31쪽.

16) ‘천번지복’은 김태준이 인터뷰에서 중국 신문학을 만난 충격을 묘사한 표현이었다. 다음 자료에서 재인용. 주미애, 「가라시마 다케시의 경성제대 시기 중국 현대문학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64쪽. 최창규의 인터뷰 역시 같은 자료 63쪽 참고.

17)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의 주제 관련해서 주미애의 위 자료 158~159쪽 참고. 그 밖에 가라시마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 관련 논문으로 다음 자료 참고. 홍석표, 「루쉰(魯迅)과 신언준(申彦俊) 그리고 카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중국문학』 제69집; 홍석표, 「김태준의 학문연구: 일인학자 및 루쉰과의 학문적 교섭」, 『중국현대문학』 제63호(2012); 윤대석, 「가라시마 다케시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 학보』 Vol.58(2016.5).

왕평릉(王平陵), 호산원(胡山源), 위금지(魏金枝), 한시항(韓侍桁) 등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낮은 작가 작품에 이르기까지, 문학혁명부터 혁명문학에 이르기까지 다채롭게 소장되었다.¹⁸⁾ 그리고, 이 가운데 항일무장투쟁 도서가 섞이면서 식민지 조선 내부였으나 검열장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식민지 문서고를 구축하게 되었다.

중국어 이외의 기타 언어 장서 상황을 살펴보면, 약 55만 권에 달했던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장서 중 서양서는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장서 등 약 12만 권이 구비되어 있었다. 그 중 독일어 장서(55,489권)가 47%를 차지했고, 영어 장서(43,526권), 프랑스어 장서(14,256권) 순으로 나타난다. 분야별로 볼 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법학서로서 특히 독일어 장서의 경우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¹⁹⁾

지금까지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서양어 장서 연구는 각 언어별 장서 내 특정 주제와 개념, 학문 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독일어와 프랑스어, 영어 장서의 경우 역사서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²⁰⁾ 일본어 장서는 윤리, 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²¹⁾ 독일어 역사 장서의 특징

18)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의 구성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자료 참고.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백화체 문학 장서의 구성 연구」.

19) 이상 서양어 장서 소장 상황은 아래 자료 참고. 권윤경, 「식민지 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권(2015), 210쪽.

20) 서양어 장서 연구는 아래 자료 참고. 문수현, 「독일 역사주의의 긴 그림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독일어 장서 구성 분석」, 『아시아리뷰』 7(2); 권윤경,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권(2015); 권윤경,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관 속의 얽힌 제국 시대 지성사의 네트워크」, 『아시아리뷰』 제7권 제2호(통권 14호), 2018; 권윤경, 「도서관을 통한 지성사 쓰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극동학 장서 분석」,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통권 15호), 2018; 윤영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역사장서의 구성분석 연구」, 『역사와 실학』 vol.59(2016.5).

21) 일본어 장서 연구는 다음 자료 참고. 문혜진, 「일제 식민시기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담론에 관한 소고: 경성제국대학 윤리·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4), 2015.

은 독일 역사주의와 그 거장들의 저서가 다수 구비되어 있다는 것이다.²²⁾ 이는 경성제대 법문학부에서 서양사 관련 강좌를 담당한 가네코 고스케(金子光介)의 연구, 교육과 깊게 관련되어 있었다. 그 밖에 역사학 방법론, 보편사와 세계사, 문화사 관련 저서 또한 다수 소장되어 있었다. 아시아 관련 저서들도 다수 있어 동아시아 3국에 대한 서적들이 구비되어 있었다. 사회주의 서적들도 여러 권 소장되어 있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와 프란츠 메링(Franz Mehring)이 창간한 잡지 『인터내셔널: 마르크스주의의 실천과 이론을 위한 잡지』 일부 권이 있으며, 독일노동자 대표단이 소비에트 최고회의를 방문한 자료집 『소비에트 사회주의적 건설』도 있다. 이 도서들은 경성제대 내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지적인 관심이 폭넓고 깊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해석되어도 좋을 것이다.²³⁾

프랑스어와 영어 장서에 대한 연구 역시 역사서 위주로 진행되었다. 프랑스어 장서에는 고대사, 17세기 이후의 프랑스사, 프랑스혁명사 등 서적이 소장되어 있으며 독일어 장서와 마찬가지로 마르크스주의 역사가들의 저서 역시 포함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서들은 태평양전쟁이 발발한 1941년에도 부속도서관으로 입수되었다.²⁴⁾ 일본이 식민 통치 막바지에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해 가면서 조선의 지식인조차 동포를 제국 간 전쟁에 동원하는 데 앞장서던 시기,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장서로는 여전히 마르크스주의 저서들이 입수되고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²⁵⁾ 영문 역사장서 역시 경성제

22) ‘역사주의’에 관해 문수현의 다음 서술을 참고할 수 있다. “역사주의란 역사의 개체성을 국가 중심으로 파악하는 정치사 위주의 역사학 패러다임이었다. (중략) 그러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한 정치사의 시기, 역사주의의 시기이던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기는 동시에 보편사, 세계사, 문화사 등 대안적인 역사학 방법론이 대두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문수현, 위 논문, 160쪽.

23) 문수현, 위 논문, 171쪽.

24) 프랑스어 장서 내 마르크스주의 서적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권윤경,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220~221쪽.

25) 하지만 이런 도서들의 구비와 실제 경성제대 서양사 강좌와 교수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는지의 여부는 별개 문제로 보인다는 연구 역시 있다. 마르크스주의 역사서

대의 보편적 교양주의 교육 학풍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보편성을 띤 교양주의의 명분하에, 전집, 일반교양서, 저명 학자의 저서들이 소장되었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보았듯,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서양어 장서는 경성제대의 보편적 교양주의 학풍과 관련되었으며 마르크스주의와 혁명 관련 도서도 그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항일무장투쟁 도서는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항일무장투쟁 도서가 오직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3국이 침략과 지배, 피점령과 피식민의 야욕과 비극으로 얽힌 특수한 역사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뒤엎힘을 한 몸으로 증명하는 가라시마 다케시라는 인물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본 논문의 결론에서 좀더 서술하기로 하고, 아래에서는 컬렉션 내 소장된 항일무장투쟁 도서들의 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도록 한다.

3. ‘전선’ (一條戰線) 에서 ‘피의 탄환’ (血彈) 이 되어 저항하다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투쟁 작품은 총 7권이 소장되어 있다. 이 작품들은 컬렉션에 소장된 938권의 제목과 수록작 목록을 전수조사하며 혁명문에 도서를 선별하는 과정 중 발견되었다.²⁶⁾ ‘혁명’, ‘혁명문학’, ‘신흥문예’, ‘10월 혁명’, ‘붉은 러시아 [赤俄]’, ‘전선’(戰線), ‘투쟁’ 등 키워드로 40여 권의 도서를 선별하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그 가운데 7권은 프롤레타리아 계급

와 함께 프랑스혁명사 서적들도 소장되어 있었지만, 권윤경의 연구에 따르면 역사서 속의 프랑스혁명은 장소 속에 세계사적 사건으로 존재하되 잠재적으로 (일본의 식민 통치에 위협을 가할) 위험한 내용들은 비껴갔다는 것이다. 권윤경,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223쪽.

26) 혁명문에 도서는 40권이 있으며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혁명문학 도서 연구」.

혁명이 아니라 항일무장투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작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컬렉션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에 미치지 못하는 소수였지만 이들이 소장됐던 장소와 시대의 역사적 의미가 지닌 무게는 그 미약한 수치의 가벼움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다. 해당 작품의 저자와 제목, 출판사를 저자명의 획순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제목	출판사/출판연도	비고
1	王平陵	期待	正中書局 / 1934	中國文藝社叢書, 중단편소설집
2	林箐 (陽翰笙)	義勇軍	上海湖風書店 / 1933	湖風創作集, 중편소설, 경성대학 등록 도서
3	孫俚工	血彈	上海神州國光社 / 1932	극본집(3막극)
4	程朱溪	紫色炸藥	中華書局 / 1937	中國文藝社叢書, 단편소설집
5	蔣本沂	一條戰線	上海樂華圖書公司 / 1932	극본집
6	黎錦明	戰煙	上海天馬書店 / 1933	중편소설
7	鐵池翰 (張天翼)	齒輪	上海湖風書店 / 1932	湖風創作集, 중편소설, 경성대학 등록 도서

위 목록 중 林箐의 『義勇軍』과 鐵池翰의 『齒輪』은 일본 패망 후 경성제대가 경성대학(1945.8~1946.8)으로 전환된 시기 도서관에 등록된 도서들이다. 항일의 내용 때문에 경성제대 시절 입수되었으나 등록되지 못하다가 경성대학 전환 이후 등록되었으리라 짐작해볼 수 있지만,²⁷⁾ 나머지 항일투쟁 도서들은 이미 경성제대 시기 등록되었으므로 이 짐작이 온전히 유효한 것은 아니다.²⁸⁾ 이들의 등록이 경성대학 시기로 미뤄진 원인에는 그 ‘불온한’ 내용과 더불어 역사의 우연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²⁹⁾

27)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938권 중 12권은 경성대학 시기 등록된 도서들이다. 이 중 3권은 혁명문학 관련 도서로 『革命文學論』(丁丁 編), 『戰線上』(楊邨人), 『短褲黨』(蔣光慈) 등이 있다.

28) 경성대학 시기 등록된 도서에 혁명, 항일투쟁 등 주제와 무관한 도서들로 『駱駝祥子』(老舍), 『幽默小說選』(滕鈞昌 選) 등이 포함되어 있다.

29)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혁명문학 도서 연

장르를 구분해 보았을 때 소설 5권, 희극 2권이 소장돼 있다. 5권의 소설 중 1권은 단편소설집, 1권은 중단편소설집이며 3권은 중편소설이다. 주목할 점은 7권 중 5권이 1932년 '1·28' 상해사변 중의 항일투쟁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1·28' 상해사변 제재의 항일문학작품은 그간 중국현대항일문학사 서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나, 컬렉션에 소장된 이 작품들을 통해서 그 문학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다. 나머지 2권은 각각 동북항일의용대와 '9·18' 만주사변 발발 후 중일간 교전지였던 하북성 북부의 항일전투를 제재로 했다. 이번 장에서는 우선 다수를 차지하는 '1·28' 상해사변 제재 작품 5권을 살펴 보고 다음 장에서 나머지 2권을 고찰하도록 한다.

'1·28' 상해사변 제재의 5권은 孫儂工의 『血彈』, 林箐(陽翰笙)의 『義勇軍』, 蔣本沂의 『一條戰線』, 黎錦明的 『戰煙』, 鐵池翰(張天翼)의 『齒輪』이다. 이 가운데 『血彈』과 『一條戰線』은 극본집이다.

孫儂工³⁰⁾의 3막극 『血彈』은 서문에서부터 '9·18' 만주사변을 일으킨 일본에 대한 분노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극의 줄거리는 상해의 한 시인이 '1·28' 상해사변으로 아내를 잃은 뒤 항일 전투에 참전했다가 마지막에 전사하는 내용이다. 일본군의 상해 폭격이 시작되고 일본 병사가 시인의 집으로 난입했다가 시인의 아내를 능욕하려 한다. 혼란한 틈을 타 병사의 총을 빼앗은 시인이 병사를 겨냥해 쓰러뜨리지만, 시인의 오발로 그 아내 역시 목숨을 잃는다. 시인은 그 병사의 총을 들고 상해사변의 주축부대인 19로군에 합류한다. 제2막에서는 19로군과 일본군 간의 총성이 난무하는 격렬한 전투 장면이 등장하며, 시인의 거의 모든 대사에 '피를 흘리다, 적을 죽이다' 등 표현이 등장한다.

시인: 내 사랑, 나는 이제 19로군에 들어가 우리 원수 왜놈에게 저항해

구], 193쪽.

30) 孫儂工(1894~1962)은 湖南 출신 작가이자 교육자이다. 모택동이 그에게 서예를 배워 모택동의 서예스승으로 유명하다. 가라시마 다케시의 도쿄제국대학 스승 시오노야 온(鹽谷溫)의 『中國文學概論』을 중국어로 번역하기도 했다.

내 뜨거운 피를 뿌릴 결심을 했소!³¹⁾

시인: 뜨거운 피를 흘릴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은 이때 흘리는 것이야말로 가치가 있지. 강압적 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국가를 구하기 위해 피를 흘리고,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 피를 흘리네.³²⁾

시인: 이번에 일본이 우리 동북3성을 강제 점령하고 우리 상해를 아무 이유 없이 비행기로 폭격해 폭탄이 떨어진 곳에는 피와 살이 날아다니지, (중략) 그래서 내가 일본에 저항하고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는 것은 인류의 삶과 안전을 위한 생각 때문이라네.³³⁾

극 중에는 일본에 대한 증오의 대사들이 곳곳에 등장한다. “정말 세계의 악마야, (중략) 이렇게 무자비한 야만성은 세계에서 아마 일본인만이 가능할거야, 다른 나라는 못해.”(여학생, 58쪽) “맹수들(일본을 의미함: 인용자) 우리 19로군의 혈탄으로 물리쳤구나!”(시인, 73쪽) 19로군의 항일전투에 참여한 시인과 병사들의 피가 바로 일본을 겨냥한 ‘혈탄’이 된 것이었다.

또 다른 극본집으로 蔣本沂³⁴⁾의 『一條戰線』³⁵⁾이 있다. 총 8편의 극작이 수록되어 있는데 모두가 항일무장투쟁을 주제로 한 것은 아니다. 수록작 「生命之路」, 「兩個不同時代的女性」, 「曙光」, 「最後的覺悟」, 「新生」, 「一條戰線」, 「

31) 孫俛工, 『血彈』, 23쪽.

32) 孫俛工, 『血彈』, 36쪽.

33) 孫俛工, 『血彈』, 37~38쪽.

34) 蔣本沂는 강소 출신으로 의과대학 재학 중 이 극본집을 집필했다. 이런 이력 때문에 일부 극본에 의학적 배경과 설명이 등장하곤 한다. 작가로서의 활동은 이 극본집 외에 알려지지 않으며 의사로서 중화인민공화국 건립 이후까지 여러 공헌을 했다. 생평 중 특이한 점은 1941년 일본 유학을 떠나 1944년 교토제국대학 의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는 점이다. 다음 자료 참고.

<https://baike.baidu.com/item/%E8%92%8B%E6%9C%AC%E6%B2%82/5561095>

35) 『一條戰線』은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 抗日戰爭與近代中日關係文獻數據平臺 첫 페이지에서 작품을 검색해 원문을 읽을 수 있다. 아래 주소 참고.
https://www.modernhistory.org.cn/#/SearchResult_list?searchValue=%E6%9C%9F%E5%BE%85&seniorType=&selectType=

病着歇斯的里的人們」, 「愛的烽火」 중에서 「兩個不同時代的女性」과 「一條戰線」이 항일의 내용을 담고 있다.

2막극 「一條戰線」 역시 '1·28' 상해사변을 주요 배경으로 한다. 제2막의 줄거리는 일본과의 교전에서 부상을 입은 의용군 병사들이 야전병원에 실려와 나누는 대화 중심으로 구성됐다. 부상병을 간호하는 月秀는 “당신들 모두 당신들의 적 일본 제국주의를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12쪽)라고 말한다. “상처가 나오면 나는 계속 총을 들고 일본 제국주의와 죽기 살기로 싸울 겁니다. 손이 하나 잘려나간들 어떻습니까?”(부상병 國雄, 13쪽), “오늘 당신과 나는 진짜 전선에 서서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돌격하는 겁니다!”(阿根, 22쪽),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은 상해 전체에서 폭로되었습니다!”(阿根, 24쪽), “(이를 악 물고) 일본 제국주의, 반드시 복수하리라! 난 꼭 복수하고 말 거야!”(良富, 28쪽), “동지 여러분! 때가 왔습니다. 우리 어서 대오를 모집하고 전선에 서서, 우리의 적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실력을 갖추시다!”(衛民, 28쪽) 제2막 대부분은 이처럼 결의와 적개심에 찬 대사들로 채워져 있다.

「一條戰線」 이외에 단막극 「兩個不同時代的女性」이 반봉건과 더불어 항일의 주제를 담고 있다. 극중에는 흑룡강성의 항일부대 장군 馬占山을 지지하는 내용이 등장한다. 여주인공은 “만일 馬占山の 항일이 정말 그 자신의 권리와 기만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즉시 총구를 전환해 그를 쏘아 죽인 다음 일본 제국주의와 목숨 바쳐 싸울 거예요. 내 호흡이 멈추지 않는 한 나는 ‘제국주의’, ‘봉건사회’와 타협하지 않을 거예요!”(世貞, 45쪽)라고 맹세한다.

'1·28' 상해사변을 다룬 작품 중 위의 희극집 2권을 제외한 나머지 3편은 모두 중편소설이다. 陽翰笙³⁶⁾의 중편소설 『義勇軍』은 상해사변 당시 전연에 휩싸인 閘北 일대 가난한 서민들이 의용군을 조직하는 내용이 중심 줄거리이

36) 陽翰笙(1902~1993)은 사천 출신 작가이다. 『義勇軍』은 필명 林箐을 사용해 발표했다. 1928년부터 약 10년간 소설과 희극을 왕성하게 발표했으며, 30년대 상해에서 영화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약했다. 中國現代文學館 編, 『中國現代作家大辭典』, 新世界出版社, 1992年, 543쪽 참고.

다. 모두 11장으로 이루어진 이 소설은 일본군의 폭력에 희생당하는 서민들의 여러 상황 묘사로부터 이들이 자발적으로 의용군에 참여해 일본군과 격렬한 전투를 치르고, 마지막에는 의용군 부대가 퇴각하는 결말로 마무리된다. 당시 일본이 상해 서민들에게 저지른 만행, 무자비한 폭격, 서민들의 분노와 저항의식, 총탄이 난무하는 전장의 전투, 의용군에 입대하지만 보상으로 월급을 바라기도 하는 사내 등 상해사변을 겪어내는 서민의 여러 정황들을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黎錦明³⁷⁾의 증편소설 『戰煙』³⁸⁾도 상해사변이 배경이다. 陽翰笙의 『義勇軍』이 상해 서민의 항일무장투쟁을 묘사한 것과 달리 『戰煙』은 상해 상류층이 겪는 상해사변과 그들과 교류하는 청년 소위 李雅亭의 참전을 주요 줄거리로 하고 있다. 일본의 폭격을 피해 상해를 떠나 피난을 가는 상류층 사람들과 조계의 외국인들(제8장), 격전에서 부상당한 병사가 피 흘리며 걸어가고 노동자들은 전단을 뿌리는 전시 상황의 거리가 묘사되어 있다(제10장). 항일전 속의 참혹한 죽음도 병사의 입을 통해 자세히 묘사된다. 전장에서 일본군이 가스를 살포해 다들 얼굴을 가리고 있는데 한 병사가 일본군이 떨군 가죽지갑을 주우려는 어리석은 욕심에 고개를 숙였다가 가스에 노출된 순간 얼굴이 고통색으로 변하면서 사망하고(제11장), 일본의 포탄이 무수히 날아오는데도 벽들을 찾아와 성냥을 그어 담배를 피우려고 참호를 벗어난 병사, 그의 얼굴 반쪽은 포탄에 날아가고 다리는 옆에 있던 사병의 귀 옆으로 떨어지는 비참한 죽음(제11장)도 묘사되어 있다. 일본군의 포격으로 호화롭던 대저택은 폐허가 되고, 대저택 마구간에는 일본군에게 살해당한 그 집안의 아들 시체 일부가 건초더미 사이에서 발견된다(제14장). 목숨이 위태로운 전장에서 주인공 李雅亭도 일본군의 칼에 복부를 찔리는 부상을 입고 후방으로 이송되었다가 고향 호남으로 돌아가며 소설은 제16장에서 막을 내린다.

37) 黎錦明(1905~1999)은 호남 출신 작가이다. 1926년부터 작품 활동을 시작해 1936년까지 약 10년간 13편의 소설집과 2편의 문론집을 냈다. 1927년 발표한 증편소설 『塵影』에는 노신의 서문이 실려 있기도 하다. 『中國現代作家大辭典』, 236쪽 참고.

38) 『戰煙』 역시 抗日戰爭與近代中日關係文獻數據平臺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소설 제15장의 마지막에는 조선인 윤봉길의 의거가 묘사되어 있다. 일본이 상해사변 전승을 경축하는 행사에서 단상 위로는 일본 대사, 군단장 등이 돌아가며 연설을 하지만 단상 아래 청중들은 죽은 듯 조용하다.

단상 아래 청중 가운데 구리 단추 검은 코트를 입은 초췌한 낫빛의 청년
이 곁에 선 자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때 쥐고 있던 물통을 들어올리
자.....
연이어 두 번 맹렬한 폭발이 단상 아래에서 나왔다. (중략)
이 자객 윤봉길은 즉시 체포되었다. 조선의 젊은이었다. 중국과 일본의
전쟁에 땅국의 비참함을 느끼는 애국자였다.³⁹⁾

『戰煙』 속 이 장면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조선의 문서고 내에 소장된 도서가 맞는지 의심케 할 정도로 민감한 내용이다.

백화재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투쟁 작품 중 상해사변을 제재로 한 마지막 작품은 鐵池翰⁴⁰⁾의 『齒輪』⁴¹⁾이다. 이 작품은 앞서 살펴본 작품의 내용들과는 조금 성격을 달리 해 무장투쟁보다는 만주사변과 상해사변 등 국난의 시대에 직면한 청년들의 고민과 방황, 항일시위 등이 묘사된 풍자소설이다. 소설은 만주사변 소식이 상해에 전해지는 것으로 시작된다. 王任之와 여동생 惠先, 그들의 벗 漠魯, 老木 등 봉건가정을 나와 상해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은 매일 진행되는 항일시위에 참여해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외친다. 하지만 이런 구호를 곳곳에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본질적 특징은 사실상 항일의 주제를 드러내는 데 있기보다는, 항일 구호를 외치며 사회적 운동에 참여하는 지식청년들의 삶과 정신을 자세히 묘사하며 때로는 풍자의 필치로 그들을 멀리 두고 바라보는 데 있다.

상해사변 발생 경위가 청년들의 대화를 통해 자세히 설명되고(200쪽), 포

39) 『戰煙』, 144~145쪽.

40) 鐵池翰은 저명한 중국현대작가 張天翼(1906~1985)의 필명이다. 특히 풍자소설이 뛰어나다고 평가된다. 대표작으로 중일전쟁 시기 문화 행정을 담당할 지도급 인사를 풍자한 『華威先生』(1938) 등이 있다. 『齒輪』 역시 풍자소설이다.

41) 『齒輪』도 抗日戰爭與近代中日關係文獻數據平臺에서 온라인으로 읽을 수 있다.

탄이 오가는 北四川路 인근 중국인, 일본인, 서양인들이 피난을 떠나고 (241~242쪽), 19로군과 일본군의 교전이 발생하고, 상무인서관이 폭격으로 파괴된다(257쪽). 상해의 민중들은 전투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하고 전선으로 자원해 간다.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도 위로대(慰勞隊)와 간호대를 조직해서 활동한다(259~260). 소설의 전반부와 중반부 주요 인물 중 한 명이었던 惠先은 전투 지원활동을 하는 스스로가 상당히 진보했다고 평가하고, 주변의 다른 청년들은 그녀를 지지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260쪽). 張天翼의 작품 중 잘 알려진 소설은 아니지만 상해사변을 전후한 시기 청년들의 고민과 열정을 잘 그려내고 있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4. 스스로 ‘폭약 (炸藥)’ 이 되어 저항하다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의 항일무장투쟁 작품 가운데 2권은 각각 동북항일의용군⁴²⁾을 다룬 『期待』와 1933년 무렵 하북 북부 지역의 항일투쟁을 제재로 한 『紫色炸藥』이다. 王平陵⁴³⁾의 중편소설 「期待」는 동북항일의용군의 항일투쟁을 중심으로 줄거리가 전개된다. 작품집 『期待』⁴⁴⁾에는 표제작 「期待」

42) 동북항일의용군은 1931년 ‘9·18’사변 발생 후 중국 동북지역의 일반 평민, 경찰과 동북군의 일부 관병이 조직한 의용군, 구국군, 자위대 등 항일무장단의 통칭이다. 통일된 지도체계나 편제 없이 각 부대가 독립성을 지녔으며 군비는 모금이나 원조로 채워졌다. 주로 유격전을 전개했다. 1933년 일본의 전면적 공격으로 와해되어 일부는 화북 이남으로 들어왔으며, 일부는 계속 동북에 잔류해 공산당이 이끄는 동북인민혁명군에 흡수되었다. 維基百科 ‘東北抗日義勇軍’ 항목 참고.

<https://zh.wikipedia.org/zh-cn/%E4%B8%9C%E5%8C%97%E6%8A%97%E6%97%A5%E4%B9%89%E5%8B%87%E5%86%9B>

43) 王平陵(1898~1964)은 강소 출신 현대작가이다. 30년대 ‘민족주의문학’을 제창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중일전쟁 발발 후 중화전국문예계항적협회 상무이사와 조직부 주임을 역임했다. 1949년 대만 행 이후 교직과 집필을 병행했다. 『中國現代作家大辭典』, 470쪽 참고.

44) 『期待』 원문 또한 抗日戰爭與近代中日關係文獻數據平臺에서 검색 후 읽을 수 있다.

이외에 「父與子」, 「文昌星」, 「救國會議」, 「鐵練」, 「煙」 등 5편의 단편소설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작 모두가 항일투쟁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救國會議」가 '1·28' 상해사변 발생 후 상해 인근 마을의 구국회의 개최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⁴⁵⁾

「期待」는 일본이 동북지역을 점령하자 사지에 몰린 농민들이 조직한 의용군 부대의 목숨 바친 전투를 묘사했다. 동북지역의 대호산(大虎山)을 무대로, 산 정상으로 내몰린 채 산 아래 일본군과의 전투에 목숨을 거는 병사들이 주인공이다. 이들은 양식이 떨어져 굶주리면서도 끝까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다가 최후의 1인마저 전사한다. 치열히 싸우다 장렬히 전사하는 장면은 독자들을 숙연하게 만들 정도로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程朱溪⁴⁶⁾의 『紫色炸藥』은 단편소설집이다. 「絞」, 「紫色炸藥」, 「俘虜」, 「父與子」, 「灑鞋」, 「強盜」, 「掃興」, 「敵人經過的村庄」 등 8편의 소설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중 「紫色炸藥」, 「俘虜」, 「掃興」 3편이 항일 제재이다. 중국현대항일문학사 맥락에서 이 소설들의 특별한 점은 항일문학 작품 중 드물게 보이는 그 공간적, 시간적 배경이다. 1931년 일본이 동북을 점령한 뒤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하북과 몽골 경계에 자리한 향촌을 배경으로 한다. 중일간 교전이 끊이지 않았던 이곳의 평범한 백성들이 겪었던 고난과 투쟁의 역사를 程朱溪는 작품으로써 기록했던 것이다.

「俘虜」는 항일 투쟁을 하다가 일본에게 붙잡힌 7인의 포로 이야기이다. 이들은 전투에서 총알이 다 떨어져 일본군의 황량한 보루에 갇히게 되었다.

45) 「救國會議」는 '1·28' 상해사변 이후 구국 활동을 펼치는 상해 인근 지역민을 풍자한 풍자소설이다. 겉으로는 구국을 외치지만 사실은 혼란을 틈타 사리를 채우려는 각양각색의 인물들이 등장한다. 중일전쟁 시기 전시 문예 지도부 인사를 풍자한 張天翼의 대표작 「華威先生」에 견줄만한 작품이다.

46) 程朱溪(1906~1952)는 안휘 출신 작가이자 관리였다. 1925년 북경대학에 입학해 문화계 인사들과 교류하며 작품활동을 했다. 중일전쟁 시기 중화전국문예계항적협회에서 활동했으며 국민당 중경시 집행위원회 서기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일본 패망 후에는 안휘성과 남경 등지에서 관리로 근무했다. 아래 자료 참고, 「程朱溪의抗日小說《紫色炸藥》」 https://epaper.gmw.cn/zhdsh/html/2015-05/06/nw.D110000zhdsh_20150506_1-18.htm

포로 중에는 앓던 소년도 있다. 그는 살을 에는 감방의 추위 속에서도 가장 밝고 씩씩하며 탈출과 구출의 희망을 놓지 않는다. 작품은 포로들이 겪는 매서운 추위의 고통과 그림에도 불구하고 적을 향해 품은 분노와 적개심, 멀지 않은 만리장성 저편에 방어선을 친 아군 부대가 이쪽으로 와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묘사하고 있다. 뼈를 깎는 극한의 열악한 감옥 환경 속에서도 포로들이 보여주는 형제애가 자세히 묘사되어, 반친(反親)의 기법으로 오히려 일본군의 잔혹함을 잘 드러내 보여준 소설이다.

「掃興」은 소설 첫머리에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1933년 3월로 밝히고 시작한다. 북경과 하북의 준화(遵化) 지역이 배경이다. 풍자의 기법은 아니지만 항일 구호를 외치는 청년들의 이기적, 위선적 면모를 잘 보여준 소설이다. 북경 인근 전선의 병사들을 지원하자고 모금운동을 하는 4인의 청년들이 주요 인물이다. 이들은 구호품을 전달하기 위해 전선 인근의 마을을 방문하지만 일부러 전투 흔적이 없는 안전한 마을만 골라 방문한다. 부대를 방문해 융성한 접대를 받고 부대가 제공한 군용트럭을 타고 도시로 돌아온다. 구호의 행위에 자아도취 된 청년들은 흥분된 상태이다. 군용트럭에서 이들은 전국 청년들이 우리처럼 애국하고 위험을 무릅쓰며 전선으로 가야한다고 떠벌리다가 흥이 올라 노래까지 부른다. 하지만, 도중 부상병을 태우게 되고 부상병을 위해 자신의 자리를 내주는 한 대위를 보자 ‘흥이 깨졌다’고 느낀다.

「紫色炸藥」 역시 1933년 무렵 하북 북부의 향촌을 배경으로 민국 22년이라는 시간적 배경이 소설 초반에 제시되어 있다. 주인공 宋仁은 북경 인근 밀운(密雲) 출신의 전기공으로 부모님과 아내를 고향에 두고 북경으로 상경해 전기공으로 일한다. 1933년 3월 초 적(일본)이 열하(熱河) 일대를 점령하기 위해 중국군과 치열한 격전을 벌이게 되고, 宋仁의 고향 일대도 비행기의 폭격을 받는다. 북경에서 일하던 宋仁은 고향 가족들이 걱정되어 가게 주인에게 특별 휴가를 얻어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폭격으로 허물어진 고향집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벽돌 아래 깔려 아직 마르지 않은 피로 범벅된 어린 조카의 손, 부모와 형의 한쪽 다리와 손, 신체의 반쪽, 산산조각 난 머리, 발가벗

겨진 채 피 흘리며 죽어있는 아내뿐이었다. 그는 무너진 돌조각 사이로 조각난 가족들의 시신을 찾아내 한 데 모은다.

이 같은 참사를 겪고 난 宋仁은 길에서 한 장교를 우연히 만난다. “우리가 피와 살로써 적을 막아내고 물리치지 않으면 전국의 마을이 이런 재앙을 겪을 겁니다.”라는 장교의 고백을 들은 그는 입대를 결심한다. 전기공 출신인 그는 폭약 제조에 큰 관심을 보인다. 얼마 후 그는 부대를 빠져나와 일본군 비행장에 폭탄을 터뜨리고, 일본군 수뇌부 앞에서 폭탄을 터뜨려 자결한다. 이 작품은 단편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비극을 겪기 전 북경에서 일하는 착실한 전기공 宋仁, 그가 가족들의 시신을 거두는 과정, 이후 항일 부대에 입대했다가 혼자 벗어나 스스로 폭탄이 되기까지의 이야기가 차분한 필치로 상세히 그려져 있어 그 비극이 더욱 강렬하게 부각된다.

5. 나가며: 남겨진 과제들

다음은 식민 말기 일본이 조선의 문예인을 총력전에 동원하기 위해 창간한 잡지 『국민문학』이 개최한 세 번의 좌담회 중의 발언들이다. 일본인과 조선인 문단 관련 인사들이 모여 ‘조선문학의 재출발을 말한다’(1941년 11월 진행), ‘대동아문화권의 구상’(1942년 2월 진행), ‘전쟁과 문학’(1943년 6월 진행)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한 좌담회들이었다.

“당면의 (조선인: 인용자) 작가가 진정한 일본인이 되는 것에 철저하다면 아무런 말이 필요 없겠지요.”(‘조선문학의 재출발을 말한다’)

A: “그와 같이 남방에서(서구 제국의 식민지였던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의미: 인용자) 독립이 인정될 수 있으니까, 조선이 그것을 모방해야 한다는 사고방법은 어느 정도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B: “그런 일은 거의 없겠죠.”(‘대동아문화권의 구상’)

“일상생활의 가운데에서 국민은 모든 것을 항상 전쟁과 연관해서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 조선 작가 중에서도 종군하게 되는 작가를 만드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아주 절실한 것을 느낍니다.”(‘전쟁과 문학’)⁴⁷⁾

두 번째 인용문 좌담회 B의 대답을 제외한 나머지 발언의 주인공은 모두 가라시마 다케시였다.⁴⁸⁾ 가라시마는 식민 말기 일본 제국의 군국주의를 선전하는 관학의 교수 역할을 철저히 수행했다. 이처럼 조선의 백성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앞장서는 일본인 교수로서의 모습과 ‘반봉건, 반군벌, 반제국’이라는 중국 신문학 주제를 추출해낸 일본인 지나문학 연구자의 모습은 서로 이율배반적이다. 그러나 이렇듯 이율배반적 역할을 한 몸으로 수행해내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20세기 전반 동아시아 3국의 역사가 침략과 점령, 식민과 지배로 뒤얽혀 있기 때문이었다. 가라시마라는 이 특수한 시기의 역사적 존재는 어쩌면 ‘중국의 항일은 용인하나 조선의 항일은 불허하겠다’는 차마 발화되지 못한 왜곡된 정의감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국민문학』 좌담회에서 발언하기 직전의 시기인 1940년,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에는 여전히 『紫色炸藥』 같은 도서가 등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의 사례를 다만 개인의 한계와 불행이었다고 치부할 수 없는 것은 또 다른 일본 지식인에게서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라고 조심스럽게 가설을 제기해 본다. 가라시마와 겹쳐지는 시대를 산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는 전쟁 후 일본의 재건과 전쟁 반성에서 중국 신문학, 특히 노신의 정신을 빌어오고자 역설한 인물이었으나, 대동아전쟁과 식민지 조선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태도를 보인 바 있기 때문이다.⁴⁹⁾

47) 이상 『국민문학』이 주최한 좌담회 관련 내용은 다음 자료 참고. 이원동 편역, 『식민 지배 담론과 『국민문학』 좌담회』, 도서출판 역락, 2009년.

48) B는 『국민문학』의 편집인 최재서(1908~1964)였다. 문학평론가이자 영문학자였던 그는 경성제대 법문학부 영문학 전공 졸업생이기도 했다.

49) 다케우치 요시미와 관련된 필자의 가설은 현재로서는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추론에 불과하다. 본격적으로 그를 연구하지 못했으며 다만 다음 몇 편의 논문을 참고했을 뿐이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도서들은 많은 경우 강좌를 담당한 교수의 요청에 의해 1~2권씩 입수되었다. 하지만 이와 달리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은 30~40권씩 한꺼번에 입수되었다. 적지 않은 수량의 도서들 한 권 한 권 모두를 가라시마 다케시가 요청했을 가능성보다는, 강좌의 필요에 의해 가라시마가 최초의 발단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실제 도서를 구매하고 입수하는 과정에서 서적상의 수집에 의해 한꺼번에 많은 도서가 들어오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⁵⁰⁾ 그러나 매 권의 도서가 가라시마의 요청에 의해 입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회에 입수된 도서목록을 가라시마가 일독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희박하다.⁵¹⁾ 가라시마가 도서목록을 검토하면서 민감하고 불온한 도서명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 역시 희박하다. 그렇다면,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에 항일무장투쟁 도서들이 구비된 것은, 혹은 가라시마가 그 도서들을 목인한 것은 역사의 필연적 결과였는가? 아니면 우연적 결과였는가?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도서들을 검토해 보았어도 여전히 풀지 못한 의문점이다.

항일무장투쟁 작품들마저 확실하게 가라시마 다케시의 현대중국문학 연구의 의도 하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하기 어려울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이 작품들은 가라시마가 의도한 바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 움직이는 현대 중국을 이해하는 프리즘이 되었다. 오늘날 중국현대항일문학사 그 어디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은 항일무장투쟁 작품들이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에 구비

기 때문이다. 최종길, 「대동아전쟁과 다케우치 요시미의 전쟁책임론」, 『사립』 Vol.64(2018); 스즈키 마사히사(鈴木將久) 저, 임명신 번역,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관」, 『아세아연구』 제52권 2호(2009); 조경란, 「냉전시기(1950-60년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인식: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관: 사상적 아포리아와 ‘좌파-오리엔탈리즘」, 『사회와 철학』 제28집(2014.10); 최종길, 「전후 다케우치 요시미의 역사인식: 루쉰 읽기와 저항론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9집(2019).

50) 현재로서는 이 같은 세부적 도서 입수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의 도서 입수에 대한 자료로 도서관부가 남아 있으나 외부 공개 가능성의 여부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 도서관부는 현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학술정보개발부에서 보관, 관리하고 있다.

51) 가라시마가 입수 도서 목록들을 사전에 검토했는지 사후에 일독했는지의 여부 또한 현재로서는 밝히기 어렵다.

되어 있음으로써,⁵²⁾ 경성제대의 존망 이후 한 세기 가까운 시간이 흐른 현재 한국의 연구자들이 중국 백성들이 피 흘려 항일한 역사를 다시금 인식하게 된 것이다.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도서들은 여전히 많은 풀리지 않은 의문점을 남겨두고 있다. 이 도서들과 도서관부를 대조하며 그 입수 정황을 더 세밀히 추적해 가볼 수 있으며, 중국현대항일문학사의 주류에서 이 작품들이 소외되어 온 이유에 대해서도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작품들을 세밀히 읽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들이 제기되었다. 程朱溪 『紫色炸藥』의 공간적, 시간적 배경에서의 일본 점령과 중국의 항전, 그리고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 王平陵 『救國會議』와 張天翼 『齒輪』의 풍자성, 현대문학작품 가운데 동북항일의용군 제재의 작품을 더 찾아 읽고 분석하기, 작품 몇 군데에 내비친 당시 중국의 조선 인식, 이른바 해방구의 항일문학작품과는 다른 특징들, 경성제대 부속도서관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에게 도서를 공급한 서적상 중 1인이었던 丙山嘉吉(丙山完造 동생)의 역사적 역할, 군국주의의 화신이자 전쟁 선동자로서의 가라시마의 그림자가 투영된 컬렉션 내 작품에 대한 검토 등은 추후의 연구를 기대하고자 한다.

52) 다음과 같은 대표적 중국항일문학사 저서에서 본 컬렉션 내 항일무장투쟁 작품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藍海, 『中國抗戰文藝史』, 上海現代出版社, 1947; 房福賢, 『中國抗日戰爭小說史論』, 黃河出版社, 1999.

參考文獻

- 王平陵, 『期待』, 正中書局, 1934.
- 陽翰笙(林箐), 『義勇軍』, 上海湖風書店, 1933.
- 孫儂工, 『血彈』, 上海神州國光社, 1932.
- 程朱溪, 『紫色炸藥』, 中華書局, 1937.
- 蔣本沂, 『一條戰線』, 上海樂華圖書公司, 1932.
- 黎錦明, 『戰煙』, 上海天馬書店, 1933.
- 張天翼(鐵池翰), 『齒輪』, 上海湖風書店, 1932.
- 加藤一夫, 河田いこひ, 東條文規 지음, 최석두 옮김, 『일본의 식민지 도서관』, 도서출판 한울, 2009.
- 김기석, 『일란성 쌍생아의 탄생, 1946: 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설』, 교육과학사, 2001.
- 김용직, 『김태준 평전』, 일지사, 2007.
- 이민주, 『제국과 검열: 일제하 신문통제와 제국적 검열체제』, 소명출판, 2020.
- 이원동 편역, 『식민 지배 담론과 『국민문학』 좌담회』, 도서출판 역락, 2009.
- 이윤희, 『문학으로 '현대 지나' 인식하기』,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2019.
- 정근식 외 엮음, 『검열의 제국: 문화의 통제와 재생산』, 푸른역사, 2016.
- 정선이, 『경성제국대학 연구』, 문음사, 2002.
-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 籃海, 『中國抗戰文藝史』, 上海現代出版社, 1947.
- 房福賢, 『中國抗日戰爭小說史論』, 黃河出版社, 1999.
- 강내희, 「식민지시대 영어교육과 영어의 사회적 위상」, 『안과밖』 18권, 2005.
- 권윤경, 「식민지도서관과 이식된 근대: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장서 및 역사서 분석」, 『사회와 역사』 105권, 2015.
- 권윤경, 「프랑스 오리엔탈리즘과 '극동'의 탄생: 경성제국대학 프랑스어 도서들 속에 얽힌 제국 시대 지식사의 네트워크」, 『아시아리뷰』 제7권 제2호

- (통권 14호), 2018.
- 권윤경, 「도서관을 통한 지성사 쓰기: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의 프랑스어 극동학 장서 분석」, 『아시아리뷰』 제8권 제1호(통권 제15호), 2018.
- 김미지, 「독서의 식민지적 조건과 양서(洋書) 읽기의 열망들」, 『구보학보』 vol., no.32, 2022.
- 문수현, 「독일 역사주의의 긴 그림자: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독일어 장서 구성 분석」, 『아시아리뷰』7(2).
- 문혜진, 「일제 식민시기 국가신도의 국민도덕화 담론에 관한 소고: 경성제국대학 윤리·종교 부문 장서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8(4), 2015.
- 배연희, 「魯迅, 內山完造와 上海」, 『중국학보』 55권, 2007.
- 백영길, 「金台俊과 동아시아 문학: 中國現代文學論 및 延安行을 중심으로」, 『한림일본학』 2권, 1997.
- 스즈키 마사히사(鈴木將久) 저, 임명신 번역,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관」, 『아세아연구』 제52권 2호, 2009.
- 윤대석, 「가라시마 다케시의 중국 현대문학 연구와 조선」, 『구보 학보』 Vol.58, 2016.
- 윤대석, 「경성 제국대학의 식민주의와 조선인 작가: ‘감벽’의 심성과 문학」, 『우리말글』 제49집, 2010.
- 윤영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영문 역사장서의 구성분석 연구」, 『역사와 실학』 vol.59, 2016.
-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내 백화체 문학 장서의 구성 연구」, 『중국 소설논총』 제57집, 2019.
- 이윤희, 「경성제국대학 부속도서관 소장 백화체 문학도서 컬렉션 내 혁명문학 도서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138호, 2023.
- 임현영, 「한국과 중국의 항일문학: 동아시아 평화정착을 위한 문학인의 역할」, 『내일을 여는 역사』 2014년 겨울호(통권, 제57호).
- 정병설, 「‘도서원부’를 통해 본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의 한국고서 수집」, 『문헌과 해석』 통권 제63호, 2013.
- 정준영, 「‘만주 건국대학’이라는 실험과 육당 최남선」, 『사회와 역사』 제110집,

2016.

- 정준영, 「식민지 제국대학의 존재방식: 경성제대와 식민지의 ‘대학자치론」, 『역사문제연구』 제26호, 2011.
- 조경란, 「냉전시기(1950-60년대) 일본 지식인의 중국 인식: 다케우치 요시미의 중국관: 사상적 아포리아와 ‘좌파-오리엔탈리즘」, 『사회와 철학』 제28집, 2014.
- 최영호, 「일제의 ‘신민화’ 정책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第67輯.
- 한기형, 「‘불온문서’의 창출과 식민지 출판경찰」, 『大東文化研究』 제72집.
- 한기형, 「근대시가의 ‘불온성’과 식민지 검열: 『諺文新聞의詩歌』(1931)의 분석」, 『상허학보』 vol.25, 2009.
- 한기형, 「‘이중출판시장’과 식민지 검열: ‘토착성’이란 문제의식의 제기」, 『민족문학사연구』 vol.57, 2015.
- 홍석표, 「루쉰(魯迅)과 신언준(申彦俊) 그리고 카라시마 다케시(辛島驍)」, 『중국문학』 제69집, 2011.
- 홍석표, 「김태준의 학문연구: 일인학자 및 루쉰과의 학문적 교섭」, 『중국현대문학』 제63호, 2012.
- 최종길, 「대동아전쟁과 다케우치 요시미의 전쟁책임론」, 『사림』 Vol.64, 2018.
- 최종길, 「전후 다케우치 요시미의 역사인식: 루쉰 읽기와 저항론을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9집, 2019.
- 江小蕙, 「內山嘉吉與魯迅」, 『魯迅研究月刊』, 1986-09-28.
- 吳長華, 「魯迅與內山嘉吉夫婦」, 『上海魯迅研究』 1988.
- 주미애, 「가라시마 다케시의 경성제대 시기 중국 현대문학론 연구」,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과 석사학위논문, 2018.
- 「程朱溪의抗日小説《紫色炸藥》」,
https://epaper.gmw.cn/zhdsb/html/2015-05/06/nw.D110000zhdsb_20150506_1-18.html

Abstract

Research on anti-Japanese armed struggle literatures in vernacular Chinese Literary Book Collection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Affiliated Library

Lee, Yun Hee

Among the books held in the library affiliated with Keijo Imperial University, the only government institution in Jose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re 938 volumes of Baekhwa-style literary books published in mainland Chin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se books, preserved as an independent archive, are a collection collected by Takeshi Karashima, a professor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Faculty of Law and Literature at Keijo Imperial University, and are equipped with a wide range of genres and topics, including literary works and critical books, providing a dynamic contemporary experience through various literary works. We can confirm Karashima's research orientation to vividly read China. This collection also contains some books that deviate from the conventional wisdom about colonial archives, and special attention will be paid to 40 books of revolutionary literature and 7 books of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In particular, the existence of seven anti-Japanese armed struggle books serves as historical evidence that illustrates the existence of a special academy called Keijo Imperial University, which was free from the harsh censorship of the colonial ruler, and at the same time, Karashima's three major themes of modern Chinese literature are 'anti-feudalism' and 'anti-feudalism'. Let us reflect on the historical role of the Baekhwa style literary book collection that led to the development of 'anti-conquest, anti-empire'.

Furthermore, we can refl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imes and intellectuals by referring to these books and Karashima's actions at the end of colonial rule. At that time, Karashima, as a professor of government studies, not only forced the Korean cultural community to cooperate in the war, but also took the lead in mobilizing Koreans for the war. The tragic choice of a foolish

intellectual caught up in the arrogant waves of history and these seven books on the anti-Japanese armed struggle left a contradictory trace. In addition, the seven books can also be used as materials to supplement the gaps in the description of literary history with topics and contents that have not been paid attention to in the existing history of modern Chinese anti-Japanese literature.

Key words :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vernacular Chinese Literary Book Collection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Library, Karashima Takeshi(辛島驍), China's Anti-Japanese Armed Struggle Books, Colonial Archives, Wang Pingling(王平陵), Sun Lianggong(孫良工), Yang Hansheng(陽翰笙, 林箐), Cheng Zhuxi(程朱溪), Jiang Benyi(蔣本沂), Li Jinming(黎錦明), Zhang Tianyi(張天翼, 鐵池翰)

투 고 일 : 2024. 1. 10. / 심 사 일 : 2024. 1. 15. ~ 2024. 2. 15. / 게재확정일 : 2024. 2. 20.